

大邱地域 日・洋折衷式 住居의 空間 變化過程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rocess of Spatial Transfiguration for the Japanese-Western Eclectic Houses in Taegu province

尹 在 雄 *
Yoon Jae-woong
李 喆 永 **
Lee Chul-young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figuration of the plan of the Japanese-Western eclectic houses in the process of the change in the living style and modernization.

Twenty four Japanese-Western eclectic houses, which were located in Taegu province and constructed during the period from the end of 19th century to the year 1945, were surveyed and analyzed about the original plans and the process of their spatial transfigu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the original plans, the bathroom, toilet and entrance hall in the residential space and HUSMA(wooden sliding doors) for separation of the rooms had been installed. 2) After the Liberation, the rooms of the residential space had been transfigured from TADAMI, JASHIKI, kitchen and toilet etc. to ONDOL, ANBANG, kitchen and toilet etc of the Korean traditional style. From 1980's they composed of living room, dining room and entrance hall of the Western-style. 3) From the liberation to 1960's, each room of residential space had been transfigured greatly from the Japanese style into the Korean style. Thus as the entrance hall, bathroom and TADAMI has been disappeared, ONDOL and MARU reappeared. Since 1980's bathroom, dining room and entrance hall of the Western-style have recomposed in their residential space. But ANBANG is still used as a major living space in the surveyed houses.

* 정회원, 효성여대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효성여대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이 논문은 199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 론

한 사회의 주거문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습득된 지식 및 경험체계의 총합적인 반영물이며, 이렇게 형성된 주거문화는 학습되어 전승되는 것이지만, 결코 고정된 것은 아니어서 단절과 축적의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변화하여 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주거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거건축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이것이 당시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왔는가에 대한 史的 탐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는 조선말기까지만 해도 전통사회의 보수성과 정체성으로 인해 큰 변화 없이 전개되어 왔으나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근대화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외세에 의해 강압적인 개항이 이루어지고 재래의 주거형태와는 상이한 外來樣式의 주거가 우리의 도시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전통적인 주거문화는 자생적인 발전의 기회를 상실한 채 수난의 역사를 맞게 되었다. 이 시기에 유입된 외래양식의 주거 중 특히, 일·양절충주거는 일제 강점기간 동안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 중 다수는 전통 주거문화와의 충돌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脈을 이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일·양절충주거는 과거 역사에 대한 반감과 일제에 의해 이식된 식민문화의 잔존물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났으며, 관련자료는 住居史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기도 전에 파괴되거나 散失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양절충주거를 포함한 근대주택에 대한 연구는 그 전시기의 전통주택과 현대주택을 이어주는 연결부분을 찾는다는 의미 외에도 그것이 우리의 주거문화 발전과정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근대 주거건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의 관점이 대부분 공간적·형태적 특성분석이나 원형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현상적인 변용양상만을 고찰하는데 머물고 있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응·발전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데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항 이후 대구지역에 건립된 일·양절충주거의 변용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근대주거의 변화과정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일·양절충주거의 공간구성 및 특성은 어떠한가.
- 2) 일·양절충주거의 내부공간구성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 3) 일·양절충주거의 단위공간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용되어 왔는가.

이 연구 결과는 일·양절충주거에 대한 실증적 자료축적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들 주택의 공간구성, 지역적 특성 및 변화과정 등이 고찰됨으로써 주택변천의 지역적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고, 앞으로 한국 주거문화의 발전적 전개방향 모색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일·양절충주택의 유입과정

일본은 明治시대 이후 서구 樣式建築의 영향을 받았다. 明治 초기 일본의 匠人들은 목조로 석조나 벽돌조의 樣式建築을 모방한 擬洋風의 주택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모방은 단지 외관 뿐만 아니라 평면에도 영향을 미쳐

현관 옆에 서양식 응접실을 부가하는 등의 일·양절충식주거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일·양절충식주택은 日式주택과 서양식주택의 절충형으로 일본에서는 1920년대 중반부터 “文化住宅”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보급되었으며,¹⁾ 우리나라에는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의 조선은행 사택을 시초로 각 도시의 관사나 사택에 널리 채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관사나 사택은 격증하는 도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권장되었으며, 그에 따라 1923년에는 3,212호나 건립되었다.²⁾ 이와 함께 조선회사령의 철폐(1920)로 일본자본의 한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아울러 일제의 식민지 경제수탈정책도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주택업자들이 다수 들어와 서민용 저렴주택을 일·양절충식으로 공급하였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는 이들 주택이 소위 文化式住宅³⁾이라 하여 한때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양절충식주택은 1920년대 한국인 건축가들의 재래주택 개량 논의에 선례로 작용하였으며 이후 營團住宅(1941년)에 까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2 개화기 이후 한국도시주택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래 주거건축의 유입은 개항과 함께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일본과 서구 제국의 외교관 및 상인·선교사들을 통해서였다. 부산·인천·원산 등의 개항장을 중심으로 洋式·日式주택들이 많이 건축되었으나, 1910년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서구식 주거의

유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서구식 주거의 유입이 중단된 후에는 日式 및 일·양절충식 주택과 함께 재래식 주택에 단순히 다다미방을 연결시킨 韓·日折衷式주거 등이 보급되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인 건축가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어 韓·洋折衷式 주거가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고, 민간 주택건설업자에 의한 개량한옥이 널리 보급되었다. 1940년대에는 도시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營團住宅이 등장하였다.

해방 후에는 거실중심의 각실 배치형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고, 50년대 후반에는 일반 중·상류주택의 경우 韓·洋折衷式의 경향과 아울러 日式주택에 온돌방이 가미된 韓·日折衷式이 일부 답습되었다. 1960년대에는 재래식 주택의 곁집화, 마부의 거실화, 부엌의 입식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거실중심의 각실 배치형이 도시형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아파트의 대량 건설과 설비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LK, DK형이 보편화되었고, 이후 아파트가 단독주택의 평면을 선도하게 되었다.⁴⁾ 1980년대에는 주택난이 심화되고 부동산의 과열현상으로 인해 주택의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편향된 시각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결과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고층 및 초고층 아파트가 등장하고 도시의 단독주택은 여러 세대가 한 집에 거주하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거유형으로 되었다.⁵⁾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개화기 이후 일제가 대구시에 건립

註1) 尹張燮, 韓國建築史論, 技文堂, 1990.

註2) 東亞日報, 1923年 1月 26日 字 記事.

註3) 재래 일본식 구조에 서양식의 외관을 가미한 주택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창과 출입구를 작게 내었으며, 벽체는 단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열손실이 많았다. (자료: 朝鮮と建築, 池田太郎, 本年の民間建築見て, 1929)

註4) 李英鎭, 開化期 이후 韓國都市住宅의 變遷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4권 5호, 1988.10, p.61

註5) 鄭俊鉉, 도시단독주택의 공간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 논문, p.17

한 일·양절층식주거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및 주생활의 변화과정을 현장조사하여 자료를 총합하고 이를 분석 고찰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대상 지역은 대구의 중심지역으로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동인동, 삼덕동 일원과 대봉동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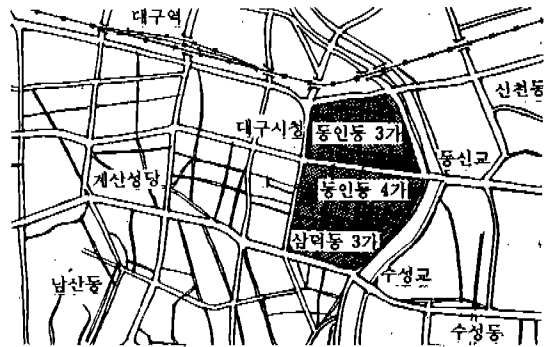
대구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예비조사 결과 현존하는 일·양절층주거의 수가 많아 공간 변화과정의 파악이 용이하고, 둘째, 각 주택들이 거주자의 생활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있으므로 공간변용에 대한 유형분류가 가능하며 셋째, 도시화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철거 신축되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어 실측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조사는 조사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조사 대상과 관련된 문헌자료와 舊 登記簿謄本 등을 열람하였다. 현장조사는 1993.8~1994.6에 걸쳐 3차례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는 주택의 현존상황 및 거주자의 일반사항 등을 파악하였고, 2차 본조사에서는 각 건물의 배치 및 평면도 실측과 사진촬영, 거주자와의 면담 등을 행하였다. 이러한 1,2차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원형평면의 추적·복원·변용유형의 분류 및 각 공간별 변화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원형평면 복원의 경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경주·상주·김천·포항 등지에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로 남아 있는 일·양절층 주거를 다수 보완 조사하여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 주택의 거주자에 의한 공간변용 분석은 개조부분에 대한 계량적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공간구성의 변화과정에 주목하여 그 변용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분

석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채집된 50호의 주택 중 거주력이 비교적 길어(10년 이상) 변화과정 추적이 용이한 24호를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인 대상주택은 동인동 17호, 삼덕동 5호, 대봉동 2호이다.



(그림 1) 조사대상 주택의 위치도

4. 조사결과 및 논의

4.1 일제시대 대구지역의 일본인 거주배경

대구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상업활동을 시작한 것은 각 개항장이나 서울에 비하여 훨씬 늦은 1893년부터였으며,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한 것은 대구가 상업상 최적지라는 정보와 더불어 경부선 철도부설공사가 착공(1903)되면서 부터였다.⁶⁾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계기로 일본인들의 거주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들의 거주지역은 대구 邑城 밖으로 한정되었으나 1909년 城壁이 철거되면서 한국인 거주지역인 城안으로 서서히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한일합방(1910) 이후 일제는 공업기반이 약한 대구를 상품의 유통거점으로 정하고 일본

註6) 尹在雄, 대구지역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1, p.61~62

소비상품의 유통기지로써 뿐만 아니라 배후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산하기 위한 상업도시로 개발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일제가 이른바 문화정치를 가장하여 군비와 경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의 독점자본을 한국에 침투시키고 한민족 말살정책과 대륙침략의 병참기지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대구에는 1920년대 후반부터 학교·관청·은행 및 각종 산업시설들이 설립되었고, 그에 따라 이들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관사와 사택이 舊城廓의 동부지역인 삼덕동과 동인동에 집단적으로 건립되었다. 1930년대에는 대구의 상권이 경상북도는 물론 멀리 타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개항장을 제외한 서울, 평양 다음의 무역액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철강, 섬유를 중심으로 한 공업도 급진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1939년 이후부터는 제2차대전의 발발과 함께 모든 국력이 전쟁에 모아짐으로써 경제활동은 급격히 침체되었다.

개화기 이후 대구에 이주해 온 일본인의 인구 및 호구수의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대구에 거주한 일본인 수는 1903년 경부선 철도부설공사가 착공되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10년 합방 이후 부터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1) 대구의 일본인 호구변화

구분년도	71906	1908	1910	1919	1934	1936	1942
호 수	697	1068	1978	3487	5924	5955	4638
인 구	3152	3568	7392	12603	26602	26769	20682

(資料:大邱府 大邱府史 2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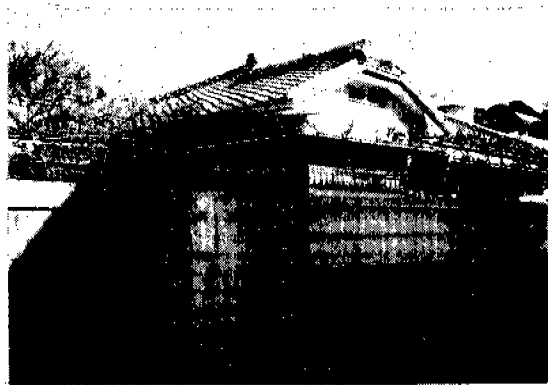
4.2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1) 물리적 사항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사용한 대상주택 24호의 건립연대, 주택구조 및 규모에 관한 물리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립연대는 舊 登記簿謄本과 거주자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시대별 주택분포는 1930년대 이전이 6호, 1930-1945년이 18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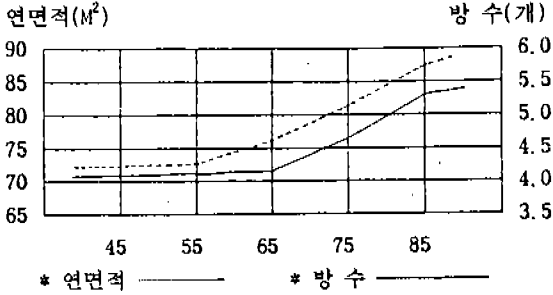
주택구조는 대부분 내부에 기둥이 노출된 芯壁의 목구조로 외벽은 비늘판벽이나 시멘트 몰탈뽕칠, 회반죽 등으로 마감되었고 지붕은 석면슬레이트나 日式 시멘트기와를 얹었다. 주택의 내부바닥에는 다다미나 마루를 깔고 회반죽으로 벽면을 마감하였으며, 천정은 格子形으로 짠 살대 위에 널판을 얹은 우물천정으로 처리하였다.



(사진1) 일,양절충식주택의 외관

현재 실내의 벽과 천정은 대부분 종이벽지를 발랐는데, 천정의 경우 기존 주택들의 천정이 2.6m 정도로 높았다. 이로 인해 겨울철 보온이 불리함으로 하여 천정 높이를 20-30cm 정도 낮춘 예가 많았다. 또한 조사 주택중 다수는 근대화의 영향으로 외벽에 타일이나 화강석 등을 붙여 외관에 변화를 주거나 前面에 현관을 설치한 경우도 있다.

주택규모는 대개 연면적이 20평 내외이며 시대별 연면적 및 방 수의 변화내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시대별 연면적 및 방 수의 변화

2) 거주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주거의 호당 거주 세대수는 단독거주는 24호 중 9호 뿐이며 나머지 15호에서는 2세대 이상 거주하는 다세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거주연수는 20년 이상이 10호이며, 10~19년이 11호, 5~9년이 3호로 나타났다. 세대별 가족 생활주기는 가족 축소기가 15호, 가족 확대기가 9호로 나타나고 있어 세대별 가족수는 적은 편이고 거주자들의 연령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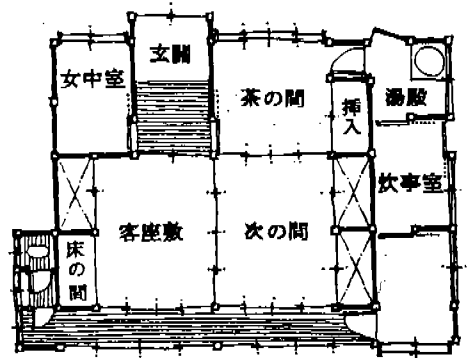
4.3 내부 공간구성의 변천

1) 원형평면의 공간구성 및 특성

조사대상 주거의 원형평면은 모두 각 실들이 후스마(ふすま)⁷⁾로 구획되어 상호개방이 가능한 겹집형으로 엔가와(緣側)⁸⁾만 있는 집중형과 2열의 실과 실사이에도 복도를 설치한 중복도형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일·양절층주거의 일반적인 공간구성방식을 살펴보면, 집중형은 북쪽 중앙의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하녀방(女中室)과 가족 생활공간인 차노마(茶の間)를

두고, 後庭에 면한 남측으로 접객 및 가장의 거주공간으로 사용되는 자시키(座敷)와 자시키의 보조공간인 쓰기노마(次の間)를 연결배치한 쓰즈끼마(續き間)형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시키(座敷)의 앞쪽에는 後庭이나 좌측 끝에 위치한 변소와의 출입을 위해 엔가와(緣側)를 부가하였으며, 평면의 우측끝에는 욕실, 부엌 등 설비공간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거주실 바닥에는 모두 다다미를 깔았으며, 자시키(座敷)의 내부에는 도쿄노마(床の間)¹⁰⁾와 찌가이다나(遣い棚)¹¹⁾, 나게시(長押)¹²⁾ 등을 설치하여 격식을 갖추었다. 차노마(茶の間)와 쓰기노마(次の間)에는 오시이레(挿入れ)¹³⁾를 설치하였고, 실 사이는 4짝 후스마(ふすま)로 처리하여 공간의 개방성을 높였다. 욕실에는 가마솥 모양의 철제 욕조를 시설하였고, 부엌은 취사기능만을 수행하는 공간의 특성상 거주실과 같은 높이로 처리하여 바닥에는 목재 마루판을 깔았다.



<그림 3> 집중형 주택의 평면(박정문씨 대)

註9) 자시키와 쓰기노마(次の間), 차노마 등의 室들이 후스마로 연결되어 있는 型으로 자시키에서 結婚式, 葬禮式, 正月行事와 같은 儀式이 행해질 때 두 공간 사이의 문을 열어 내고 統合하여 사용함.

註10) 家長의 居住空間인 자시키(座敷)의 일부에 바닥을 한 段 높여 만든 격식을 갖춘 裝飾空間으로 족자나 꽃, 장식품 등으로 꾸밈.

註11) 자시키(座敷)의 도쿄노마(床の間)옆에 설치한 장식선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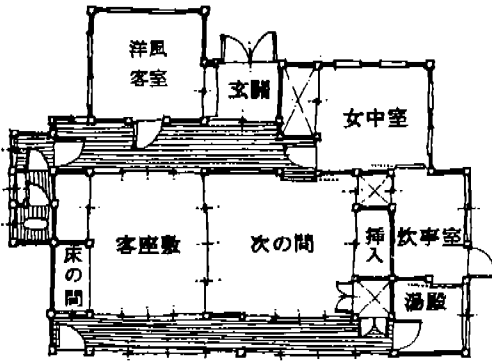
註12) 집의 格을 높이기 위해 장식한 中引枋

註13) 生活用品의 수납을 위해 방의 한 쪽 벽면에 설치한 반침.

註7) 木材로 짠 문틀 양면에 종이나 천을 바른 미닫이문
註7) 後庭쪽에 면하여 後庭이나 변소의 출입을 위해 설치한 복도.

중복도형 주택은 <그림 4>와 같이 북쪽 현관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양풍 객실을, 우측에는 하녀실(女中室)을 배치하였다. 서양풍의 객실은 손님접대를 위한 응접공간으로 입식 가구를 놓았다. 중복도의 남쪽에는 자시키키(座敷)와 차노마(茶の間)를, 우측끝에는 욕실과 부엌을 배치하였다. 자시키키(座敷) 앞쪽에는 집중형과 같이 긴 복도를 부가하여 실내에서 後庭으로 출입할 때 하나의 매개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이상에서 나타난 일·양절층주거의 공간구성



<그림 4> 중복도형 주택의 평면(정재규씨 덕)

상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평면구성이 겹집의 형태를 띄며, 각 실들이 벽체로 고정되지 않고 후스마(ふすま)로 처리되어 실의 전용성이 강하다. 둘째, 욕실·부엌이 내실화되어 있고, 북쪽에 현관을 설치하여 출입하고 있다. 셋째, 가구대신 오시이레(押入れ)를 두어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바닥구조가 온돌 대신 다다미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2) 공간구성의 시대적 변천

일본인들의 생활양식에 맞게 지어졌던 일·양절층주거는 해방후 거주자가 한국인으로 바뀌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시대별로 다양한 변용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거에 대한 공간 변용양상을 시대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간 진행되어 온 변화과정이 거주자의 가족구성·경제력·주거의식 등의 차이에 따라 각 주거별로 다르고 그 변용내용 또한 복잡 다양한 양상을 띄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 면담, 물리적 변형에 관한 흔적조사 결과 및 사회적 변화상황을 토대로 대상 주거공간의 시대별 변화과정을 파악코자 하였다.

해방후부터 60년대까지는 기존의 일·양절층주거에 생활양식이 다른 한국인이 거주하게 됨에 따라 이질적인 공간구조를 재래양식으로 환원하는 전통지향적 변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진행된 변화는 기존의 다다미방을 우리의 주생활에 맞는 온돌방으로 개수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부엌에 연탄아궁이를 시설하게 되었고, 그 결과 日式부엌은 재래식 부엌으로 개조되었다. 평면구성의 변화를 보면, 실 면적이 가장 크고 향이 좋은 자시키키(座敷)를 안방으로 사용하고 기타 실은 자녀실이나 부속실로 활용하였다. 또한 북쪽 현관은 엔가와(緣側)를 통한 출입이 선호됨에 따라 주출입구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방·부엌·창고 등으로 변용되었으며 내부에 있던 변소는 위생상의 문제와 전통적인 주거관으로 본채에서 분리되어 주로 대문간에 별도로 신축되었다. 부엌은 난방이나 주부의 동선상 안방에 인접한 공간이 주로 사용되었다.

거주실의 수적 증가나 증축은 거의 없었으며, 다만 기능이 상실된 도코노마(床の間)나 오시이레(押入れ)를 철거하여 거주실의 면적을 넓게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거주실들의 사이가 후스마(ふすま)로 구획되어 실의 독립성이 부족하였으므로 후스마에 벽지를 바르거나 가구를 배치하여 개실화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실이 남북으로 인접한 경우는 북쪽방의 채광이나 통풍문제로 후스마(ふすま)를 그대로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60년대까지의 변용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양절층주거의 자시키키

분류	이름	원형	60년대	70년대	80년대~현재	
집	박정문					
	권규현					
	김정록					
	김재락					
	이상명					
	정상렬					
	박주배					
	중형	안갑수				
권길웅						
김옥자						
김호성						
형		백남용				
		김달환				
		황말순				
		김정호				
		서동의				

분류	이름	원형	60년대	70년대	80년대~현재
중	장상기				
	정원섭				
복	황근열				
	석상권				
도	육해진				
	정재규				
형	이용선				
	박정일				

- 범례
- R₁ : 다다미방
 - R₂ : 온돌방
 - K₁ : 일식부엌
 - K₂ : 재래식 부엌
 - K₃ : 입식부엌
 - K₄ : DK형
 - T₁ : 일식변소
 - T₂ : 재래식변소
 - T₃ : 양식변소
 - B₁ : 일식욕실
 - B₂ : 양식욕실
 - B₃ : 욕실+변소
 - L : 거실
 - S : 창고
 - U : 다용도실, 세탁실
 - D : 식당

(그림5) 조사대상 주택의 시대별 변용 양상

(座敷)중심형 평면이 한국인 거주 이후 한국 전통의 안방중심형 평면으로 재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는 설비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보다 편리하고 위생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거주자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공간의 변용양상은 보다 근대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즉 연탄보일러가 널리 보급되고 싱크대가 보편화됨에 따라 부엌은 입식화하였으며, 수도의 보급율이 높아지고 수세식 변기가 보급되면서 변소의 위치가 다시 몸채로 옮겨져 내부화하였다. 또한 70년대 이후 주택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대부분의 가구주들은 향이 좋지 않은 북쪽 실들을 임대하여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 주거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향을 나

타내면서 세입자들을 위해 부족한 부엌공간과 화장실 등을 본채나 여유대지에 증축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다른 용도로 기능이 전용되었던 현관은 다시 세입자들의 출입공간으로 사용되었다.

80년대는 7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했던 아파트가 주택난의 심화와 택지 이용의 효율화에 따라 대량 공급되면서 도시의 보편적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과 더불어 거주자들에게 입식 생활 양식이 정착되고,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공간구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남쪽 엔가와(緣側)와 이에 면한 실을 통합하여 입식의 거실로 꾸미거나 부엌에 인접한 실을 식당으로 개조하여 D.K화 하는 등의 발전적인 변

용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적인 변용양상과는 달리 질적인 측면에서 70년대의 주거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세대주의 경제력이 미약하거나 집주인이 동거하지 않고 전체공간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하는 주거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시설개선에 대한 거주자들의 의욕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80년대 이후의 변용특성은 거실중심형으로 발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와 경제적인 제약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두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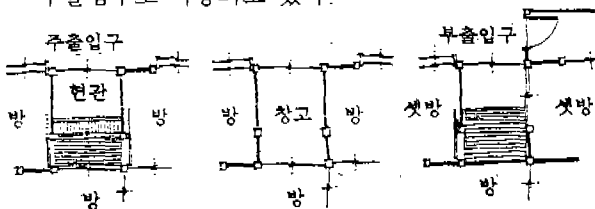
4.4 단위공간의 변천

1) 출입공간

(1) 현관

현관은 한국 전통주택에는 없었던 이질적인 공간요소로, 외부에서 내부공간으로 진입할 때 매개공간의 역할을 한다. 현관은 건립당시 조사 대상의 모든 주택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해방 이후 거주인이 한국인으로 바뀔 때 따라 출입방식에 대한 현격한 차이로 제기능을 상실한 채 방이나 부엌, 창고 등으로 변용되었다. 70년대 이후에는 조사대상 주택들이 다세대화되면서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출입구의 분리 요구가 생겨나 기존 현관은 대부분 세입자들의 출입공간으로 변용되게 되었다.

현관이 변용된 현상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주택 중 10호에서는 방이나 부엌의 용도로 바뀌었고 나머지 14호에서는 현재까지 주출입구나 부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6) 현관의 변천과정

현관이 없어진 10호의 경우는 실 전면에 있는 엔가와(緣側)나 부엌문을 이용하여 내부로 출입하고 있다. 현관이 유지되고 있는 14호 중 5호에서는 부출입구로 이용되고 있어 출입구로서의 기능이 이전보다 약화되었다. 현재에도 현관이 주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은 모두 9호로 이들 중 8호는 원래 현관이 남쪽이나 동서쪽에 설치된 경우이다. 북쪽에 현관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용도의 실로 변용되거나 부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북쪽 출입기피현상은 전통적인 진입방식을 유지하려는 거주자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2) 복도

일·양절층주거의 출입방식을 보면 집중형은 대문-현관, 중복도형은 대문-현관-복도를 통하는 동선체계를 지닌다.

각 실을 연결하는 통로공간인 복도는 중복도와 엔가와(緣側)로 구분된다. 조사 결과 중복도는 각실 사이의 통행을 위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엔가와(緣側)는 방이나 부엌에 의해 일부 소멸되거나 인접한 공간과 통합되어 마루로 기능이 변용되기도 하였다.

(표 2) 현관의 변용현황

변용 방위	용도변경(10)			유지(14)		소계
	방	부엌	창고	주출입구	부출입구	
동측	1	2		2		5
서측		1		3	2	6
남측				3		3
북측	3	2	1	1	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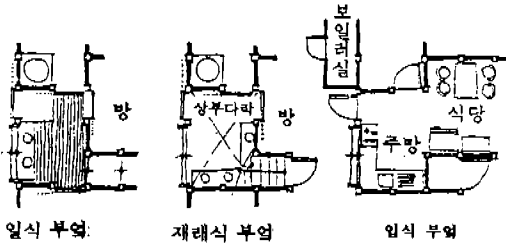
2) 설비공간

(1) 부엌

부엌의 주된 변화는 취사 및 난방연료의 변화와 부엌설비의 발전에 따른 입식화 경향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부엌의 변화과정을 생활

양식과 설비·공간적 측면에서 시대별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립 당시 日式부엌은 거주실의 바닥구조가 다다미로 처리되어 있어 전통적인 부엌과는 달리 취사기능만 하였다. 따라서 부엌바닥의 높이는 방이나 마루 등과 같은 높이를 유지하여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방후 일차적으로 거주실 바닥을 대부분 온돌로 개조하였다. 그 결과 부엌은 난방과 취사를 겸하는 재래식부엌으로 기능이 변하게 되었다. 즉 온돌난방에 필요한 연탄아궁이를 시설하기 위해 부엌바닥을 방바닥보다 30~50cm 정도 낮추었으며, 상부에는 전통주택에서와 같이 다락을 설치하여 수장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60년대까지 별다른 변화없이 지속되다가 70년대에 들어 새로운 난방시스템이 개발되고, 부엌설비가 개선되면서 부엌의 형태가 입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7) 부엌의 변천과정

난방방식은 70년대 초반에는 개별 연탄온돌에서 개별연탄 온수보일러로, 70년대 후반에는 다시 집중식 연탄 온수보일러로 개선되면서 보일러가 부엌 바깥이나 별도의 보일러실에 설치되게 되어 난방과 취사가 분리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부엌바닥은 거주실과 같은 높이로 되었으며, 부엌의 위치 또한 변경이 자유로워졌다.

80년대에는 기름 온수보일러와 가스 및 전자렌지가 널리 보급되어 난방과 취사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케 되면서 싱크대를 도입한 입식부

엌이 가장 보편적인 부엌형태로 되었다. 그 결과 타 실과의 연결성이 높아져 인접한 실을 식당으로 개조하거나, 부엌 한 칸에 식탁을 놓아 식사공간으로 활용하는 DK식 부엌이 도입될 수 있었다. 부엌의 이러한 형태변화는 80년대의 전형적인 주거유형으로 등장한 아파트의 영향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부엌의 현재 변용상황은 <표 3>과 같다.

(표 3) 부엌의 변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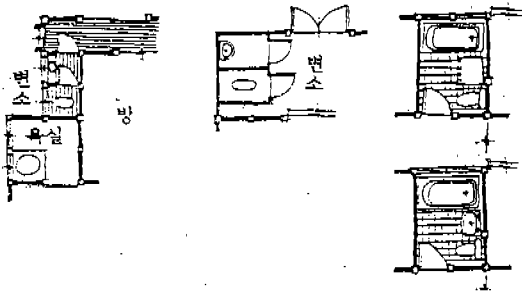
기존위치 유지		위치 변경		증 축	
재래식	입식	재래식	입식	재래식	입식
2	5	1	12	1	3

(2) 변소 및 욕실

조사대상 주거의 변화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변소와 욕실이다. 이들 공간의 변화과정을 위치와 설비적인 측면에서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변소의 경우, 일·양절충주거에서는 전통주택과는 달리 대부분 내부에 배치되었으며 설비방식도 외부계거식(수거식)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내실화되어 있던 변소는 본체에서 떨어져 나와, 주로 도로에 면한 대문칸에 욕실이나 연탄창고 등과 함께 별동으로 시설되었다. 이는 기존 일·양절충주거의 변소가 내실화되어 출입에 편리하기는 하지만 시설이 수거식인 관계로 악취 및 기생충의 번식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본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문칸에 변소를 위치시키던 전통적인 주거관념 때문으로 생각된다.

변소에 대한 이러한 현상은 60년대까지 이어졌으나 70년대 이후 수세식 변기가 보급되면서 부터 변소가 내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70년대 후반에는 수세식 변기의 수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변기와 욕조가 통합된 유형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위생설비의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하나의 공간에 변기·

욕조·세면기까지 갖춘 형태가 보편화되었다.



(그림 8) 변소 및 욕실의 변천과정

또한 일·양절층주거에는 건립 당시 내부에 별도의 욕실이 시설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60년대까지는 욕실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과 생활상의 요구가 높지 않아 방이나 부엌으로 변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70년대 이후 위생설비가 발달하고 욕실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창고 용도의 칸을 개조하여 욕실로 만들거나 마당의 일부에 시멘트 벽돌조로 세면장 및 욕실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후 욕실이 변소나 세면실의 기능과 통합되면서 주택의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소 및 욕실공간의 변용상향은 (표4)와 같다.

(표 4) 욕실 및 변소의 변용현황

욕실	용도변경			유지 및 신설		
	방	부엌	창고	욕실	욕실+세탁실	욕실+세탁실+변소
	8	3	1	1	4	7
변소	유지형		별동증축		본동증축	
	5		11		1	
					용도통합	
					7	

3) 거주공간의 변용

일·양절층주거의 거주공간은 가장의 접객 및 의식 수행공간인 자시키(座敷), 자시키의 보조공간인 쓰기노마(次の間), 가족의 생활공간인 차노마(茶の間), 하인의 거처실인 하녀방(女中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현관에 인접하

여 손님접대를 위한 洋風의 응접실을 배치한 주택도 다수 있었다. 해방 후 이들 거주공간은 생활양식이 다른 한국인이 거주하게됨에 따라 우선 실면적이 크고, 향이 좋은 자시키(座敷)는 안방으로, 기타 실들은 자녀방 등으로 변용되었다. 거주공간의 증축은 거의 없었지만 기능이 상실된 자시키(座敷)의 도쿄노마(床の間)나 각 실의 오시이레(押入れ)를 철거하여 실면적을 확장하였고 후스마(ふすま)에 벽지를 바르거나 가구를 배치하여 개실화하는 전통지향적인 변용양상을 나타내었다.

70년대 이후에는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자 대부분의 가구주들은 북쪽에 면한 실들을 임대공간으로 변용하여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게되었다. 80년대 이후는 거주자들에게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공간구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입식 생활양식이 정착되면서 부엌에 인접한 거주공간들이 거실, 식당 등으로 변용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개화기이후 대구지역에 건립된 일·양절층식 주거의 공간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주택들의 원형을 복원하여 원형평면의 공간구성 및 특성 그리고 시대별 변화양상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간구성 및 특성

조사대상 주택들의 원형평면은 모두 각 실이 후스마(ふすま)로 구획되어 상호개방이 가능한 겹집형으로 안가와(緣側)만 있는 집중형과 2열의 실과 실사이에도 복도를 설치한 중복도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주택의 공간구성상 특성은 겹집형의 평면구성, 실의 전용성, 북쪽 현관을

통한 출입, 욕실, 변소의 내부설치 그리고 각 거주실의 오시이레(押入れ)설치 및 다다미 구성 등이다.

2) 내부공간의 변화과정

(1) 해방후 부터 60년대까지는 일·양절층식의 공간구조가 재래양식으로 환원되는 전통지향적인 변용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의 최우선적 변화는 기존의 다다미방에서 온돌방으로의 개수였으며, 그 결과 日式부엌이 재래식부엌으로 개조되었다. 평면구성은 자시키(座敷)의 안방화, 변소의 외부화, 거주실의 확장 및 개실화, 현관의 변용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양절층식의 자시키(座敷)형 평면이 한국전통의 안방중심형 평면으로 재편성되었다.

(2) 70년대의 공간구성은 근대화에 따른 설비, 재료의 발달로 부엌의 입식화, 변소의 내부화가 이루어지고, 도시의 주택난 심화로 다가구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현관은 다시 세입자들을 위한 출입공간으로 변화되었다.

3) 80년대 이후에는 아파트가 도시의 일반적인 주거유형으로 보급되면서 각 실들이 통합되어 거실, D-K공간 등을 구성하는 변화를 보였다.

3) 단위공간의 변화과정

(1) 출입공간 : 현관은 방·부엌·창고 등으로 변용되었다가 다가구화 경향과 더불어 세입자들을 위한 출입공간으로 다시 사용되고 있다. 북도는, 중북도의 경우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남쪽의 엔가와(緣側)는 인접한 실들의 확장으로 일부가 소멸되거나 마루로 변용되었다.

(2) 설비공간 : 부엌은 日式, 재래식, 입식 D-K식으로 변소는 내부, 외부, 욕실과 통합 내부에 설치되는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욕실은 방, 부엌 등으로 변용되어 없어지거나, 외부에

설치되었다가 변소와 통합되어 다시 내부로 들어오는 변화를 보였다.

(3) 거주공간 : 한국의 전통지향적 공간, 북쪽에 면한 실의 입대공간화, 거실, 식당(D-K형)등 서구적 공간요소의 채용 등으로 다양하게 변용되었다.

參 考 文 獻

1. 大韓住宅公社, 住公20年史, 1979.
2. 金宣宰, 한국 근대 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3. 李英鎬, 개화기 이후 한국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 부산시 목조주택의 변용양상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4권 5호, 1988.10.
4. 川端貢, 朝鮮營團의 住宅에 關한 研究 - 문래동 주택지를 중심으로 - 서울대 석사논문, 1990.
5. 姜榮煥,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技文堂, 1991.
6. 禹銅宙, 일제시대 연립형 관사의 공간변형에 관한 현장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6호, 1991.12.
7. 尹在雄, 대구지역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 -형성과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1991.
8. 정 모, 증개축을 통해 본 일식주거의 공간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1.
9. 朴庚玉, 일제시대 일식주택의 변용을 통해 본 住樣式의 韓日 比較연구, 한국주거학회지 4권 1호, 1993.6.
10. 李喆永, 일식주거의 실내공간변용에 관한 조사연구 - 밀양시를 중심으로, 밀양산업

대 논문집 제1권, 1993.12.

11. 鄭俊鉉, 도시단독주택의 공간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 대구지역의 대중주택을 중심으로 - 계명대 박사논문, 1993.12.
12. 西山宛三, 日本のすまい, 勁草書房, 1976.
13. 鈴木成文, 日本と韓國の住居の近代化過程の比較考察 - 住様式の持續と變容, 住宅建研究所, 1987.
14. 鈴木成文, 住まいの計劃 住まいの文化, 彰國社, 1988.
15. 朝鮮建築學會編, 朝鮮と建築, 14~22권, 1929~1933